

# 아담의 세 가지 직분과 창조론과의 관계

---

**조윤희**

(그리심교회, 조직신학)

- I. 들어가면서
- II. 아담의 세 가지 직분과 창조론과의 관계
- III. 아담의 세 가지 직분의 본질적 기능과 창조론과의 관계
- IV. 창조론에 따른 아담의 세 가지 직분과 자유 의지와  
관계
- V. 마치면서

**[초록]**

본 논고는 아담의 세 가지 직분이 창조론과 어떻게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연구이다. 따라서 아담의 창조에 대한 것과 그의 세 가지 직분의 분석은 여기에 대한 중요한 증거를 제시하게 된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하나님의 형성과 모양으로” 창조하셨다. 아담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것은 아담에게 하나님의 공유적 속성이 부여되어 창조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선하심’에 의해 창조된 선한 세상을 가꾸어가도록 아담을 직분자로 세우게 된다. 이때 아담에게 ‘왕’, ‘선지자’ 그리고 ‘제사장’, 세 직분이 주어졌다. 이 세 가지 직분은 ‘하나님의 형상’과 관련이 있으며, 아담에게 주어진 ‘자유 의지’와 관련된 직분이었다. ‘하나님의 형상’은 좁은 의미의 창조론이라고 말할 수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 안에는 하나님의 속성과 함께 하나님의 창조의 기쁨이 새겨져 있었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는 여섯째 날 사람을 창조하시고, 모든 창조를 마친다. 그리고 자신이 지으신 모든 피조 세계를 돌아본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 세계를 가꾸고, 지켜내는 직분자였던 아담에게 두 가지 중요한 의무가 주어진다. 그것은 피조 세계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선함’과 ‘거룩함’을 지켜가는 것이었다. 아담이 하나님의 창조의 결정체였다면 그에게 주어진 세 가지 직분은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아름답게 가꾸어갈 사역의 결정체였다.

**키워드:** 창조, 아담, 하나님의 형상, 세 가지 직분, 자유 의지, 선하심

논문투고일 2019.07.28. / 심사완료일 2019.08.14. / 게재확정일 2019.08.29.

## 1. 들어가면서

천지만물을 창조하시던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한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실 때, 두 가지 요소를 통해 사람을 창조한다. 하나는 유한한 ‘흙’이라는 ‘티끌’을 사용하여 몸을 이루게 한다. 그리고 ‘인격’을 담아내는 ‘영혼’을 창조한다.<sup>2</sup> 특히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사람은 동물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피조물과 구별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sup>3</sup> 다른 피조물들과 구별점을 가지고 있는 아담에게 ‘하나님의 형상’과 관련된 ‘왕’, ‘선지자’, ‘제사장’의 세 가지 직분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다.<sup>4</sup> 이것은 아담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피조 세계를 하나님을 대리하여 다스리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다. 따라서 아담에게 주어진 세 가지 직분은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을 바르게 세워가는 것과 깊은 관련을 가진다.

하나님께서서는 창세기 1장 28절을 통해 세 가지 직분의 역할이 무엇인지 확연하게 말씀한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생육’, ‘번성’,

1 본 논문은 필자의 박사 학위 논문인 “둘째 아담 그리스도의 세 가지 직분론: 교리사적 고찰과 창조론에 근거한 교의학적 연구”에 실려 있는 ‘제4장 창조론의 관점에서 바라본 첫째 아담의 세 가지 직분’의 내용과 관련된 것입니다.

2 John Calvin, *Inst* I.15.1-4; Eberhard Busch, “God and Humanity”, ed., Herman J. Selderhuis, *The Calvin Handbook* (Grand Rapids: Eerdmans, 2009), 226-27: “In his doctrine of Creator and creation, Calvin disputes Plato’s view that the human soul is an outflow of the divine. ... The soul is not the divine in human beings. ...”

3 Busch, “God and Humanity”, 227: “What then is to be understood by imago Dei, the ‘likeness of God:’ after which the human being is created by God according to Genesis 1:27? ... Calvin believes this to be the noblest part of the human being: ... What then does he understand it to be? He claims that the imago Dei has, more accurately, its place in the soul (see CO 23, 26, Gen. 1:27).”

4 John Calvin, *Catechism of the church of Geneva*, ed., William S. Johnson (Sheldon: Goodwin Printer, 1815), 15-19: 1542/1545년 제네바 제2차 신앙교육서 34문은 “What then does the word, Christ, signify?”이라며 질문을 한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 “By this title, his office is still better expressed. For it signifies, that he was anointed, for a Prophet, Priest, and King.”이라고 답을 한다. 그리고 계속해서 45문에 이르기까지 세 가지 직분에 대한 것을 다루고 있다: 그리스도의 세 가지 직분이 개혁신학에 직접적으로 표현이 되기 시작한 것은 1542년, 제네바 제2차 신앙교육서에서 부터였다. 그리고 칼빈은 그리스도의 세 가지 직분을 1539년 판 기독교 강요에서도 언급했지만, 본격적인 논의는 1559년 판의 기독교강요(2권 15장에서 집중적으로 다루어진다)에서 이루어지게 된다.

‘충만’이 모든 생물들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이었다면, ‘정복’과 ‘다스림’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과 관련된 세 직분과 관계가 있다. ‘정복하라’라는 말씀은 기본 어근이 **כָּבַשׁ**(카바쉬)로서 ‘지배하다’, ‘속박하다’라는 의미를 통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을 아름답게 가꾸어가는 청지기로서의 직분을 말하고 있다.<sup>5</sup> 그리고 ‘다스리라’라는 말씀은 기본 어근이 **רָדָה**(라다)로서 하나님을 대신한 대리적 통치자로서의 직분을 나타낸다.<sup>6</sup> 특히 ‘다스리라’라고 명령하신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 세계에 대해 아담은 직분자로서 권세와 책임이 있다는 것을 함께 말하고 있다.<sup>7</sup>

피조 된 아담에게 주어진 세 가지 직분은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을 지켜내며 이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기쁨을 이루어간다. 따라서 아담에게 주어진 ‘왕의 직분’과 ‘선지자의 직분’, 그리고 ‘제사장의 직분’을 바르게 조명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 바르게 알아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가 두 번째 아담이 되어 대속의 사역을 이루실 때, 무슨 이유 때문에 세 가지 직분의 사역을 공생애를 통해 이루셨는지 알게 한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아담의 죄에 대해 대속을 이루신 것이 최종적으로 ‘하나님 형상 회복’에 따른 ‘창조 회복’과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 또한 알게 한다. 이런 측면에서 아담의 세 가지 직분을 창조론적 관점에서 분석하고, 조명해보는 것은 교의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 
- 5 J. 리처드 미들턴, 『해방의 형상』, 성기문 역 (서울: SFC 출판부, 2010), 63-46: “카바쉬”라는 동사는 특별한 제왕적 함의 없이 ‘라다’보다 더 광범위한 용어로 또 많은 문맥에서 거칠거나 폭력적인 의미를 가진 것처럼 보인다. ... 창세기 1장과 관련해서는 땅/육지 자체에 대한 폭력적이거나 적대적인 관계성의 함의는 없다.”; 빅터 해밀턴, 『NICOT 창세기 I』, 임요한 역 (서울: 부흥과개혁사, 2016), 148: “창세기 1장 28절의 카바쉬(**כָּבַשׁ**)는 힘과 독재의 의미를 부여하기보다 ‘정착’과 ‘농경’을 지칭하는 것 같다.”
- 6 피터 J. 젠트리 · 스티븐 J. 웰럼, 『언약과 하나님 나라』, 김귀탁 역 (서울: 새물결플러스, 2017), 283-84: ‘모양’이라는 용어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처럼 아담이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맺고 있음을 나타낸다. “다스리라”라는 용어는 시편 72편 8절이 보여주는 것처럼 왕에게 적용된다. 그리고 “정복하다”라는 단어는 특별히 왕의 일을 가리킨다.
- 7 클라렌스 바우만, 『벨직 신앙고백서 해설』, 손정원 역 (서울: 도서출판 솔로몬, 2016), 211-14; 미들턴, 『해방의 형상』, 63: “... 에스겔 34:4은 고대근동에서 왕에 대한 표준적인 이미지였던 목축의 은유에서 취해진 것이다. 제왕적이며, 목축적 은유들에 대한 이러한 교차점은 특히 창세기 1:26, 28과 연관된다. 여기서 ‘라다’는 그 대상을 동물들의 다양한 범주들로 다루는 곳에서 등장한다.”

## II. 아담의 세 가지 직분과 창조론과의 관계

### 1. 아담의 형상에 나타나는 공유적 속성과 세 가지 직분과의 관계

넛사의 그레고리우스(Gregorius of Nyssa)는 창세기 1장 26절의 해석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가리켜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능력”, “특권”을 뜻하며, “하나님께서 인간을 모든 ‘선’에 참여할 수 있도록 피조한 것”으로『인간의 창조에 관하여』에서 논한다.<sup>8</sup> 칼빈(John Calvin)은 『기독교 강요』제3권 제15장 3절에서 ‘형상’을 가리켜, “하나님의 영광의 외형”으로 표현하면서 “우리를 하나님과 더욱 가까이 결합시켜주고”, “우리를 동물과 구별하고 분리시켜주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sup>9</sup> 특히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실 때, 그의 코에 붙여넣은 ‘생기’는 일반적으로 ‘생령’인 ‘영혼’으로 번역이 되며, ‘영적 지각’과 같은 ‘활동하는 양심’으로 표현되며,<sup>10</sup> 이는 하나님의 공유적 속성과 관련된다. 그리고 아담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피조되었다는 것은 아담은 다른 피조물과는 달리 하나님으로부터 존귀한 성품을 부여받았다는 것을 뜻한다.<sup>11</sup> 이것은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피조물이 함께 담아낼 수 있는 ‘공유적 속성’이 아담에게 부여되어 피조되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sup>12</sup>

바빙크(Herman Bavinck)는 ‘공유적 속성’을 가리켜 “하나님께서 가지신 ‘지식’과 ‘지혜’, ‘선’과 ‘은혜’, ‘의’, ‘거룩’ 등에 관한 어떤 희미한 유사성이 피조물 가운데 있다”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다.<sup>13</sup> 매튜 헨리(Matthew Henry)의 창세기 1장 26절의 주석에 의하면 ‘하나님의 형상’은 사람이 지니는 본성과 본질을 가리키는 것으로, 사람은 ‘지식’과 ‘의’와 ‘참된 거룩함’이라는 하나님의

8 Andrew Louth, ed. *Ancient Christian Commentary on Scripture, Old Testament I*, ed., Thomas C. Oden (Illinois: IVP, 2001), 34.

9 Calvin, *Inst* I.15.4.

10 앨런 로스, 『창조와 축복』, 김창동 역 (서울: 도서출판 디모데, 2007), 177-78.

11 G. Ch. 알더스, 『회란주석 창세기 I』, 기독교회사 편집부 역 (서울: 기독교회사, 1986), 102.

12 이신열, “칼빈의 대적자 오시안더: 인간론을 중심으로”, 『칼빈과 종교개혁가들』, 이상규(편) (부산: 고신대학교 개혁주의학술원, 2012), 210: “아담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 받았다는 것은 그가 하나님과 동일한 본성(essence)을 지니게 되었다는 뜻이 아니라 그의 속성(attributes)을 반영하게 되었음을 뜻한다.”

13 헤르만 바빙크, 『하나님의 큰 일』, 김영규 역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1999), 128-29

속성과 관련된 본성으로 피조되었다는 것을 뜻한다.<sup>14</sup>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리켜 “하나님의 본성과 뜻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올바르게 아는 마음이며, 하나님께 순종하는 의지일 뿐만 아니라 그 행위들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 것”이라고 말하며, 하나님의 형상에는 하나님의 공유적 속성이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증거한다.<sup>15</sup> 판 브루헌(J. Van Bruggen)의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주석』(*Annotation to The Heidelberg Catechism*) 제31문의 해설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자기의 형상’에 비추어 사람에게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의 직분을 부여한다.<sup>16</sup>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세 가지 직분을 부여한 것은 피조 세계를 다스리기 위한 제도적인 측면을 구축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속성에 걸맞은 피조 세계를 이루어가기 위함이었다.

‘공유적 속성’을 통해서 하나님은 의식적이고, 지성적이며, 자유롭고, 도덕적인 인격적 존재로 자신의 모습을 드러낸다.<sup>17</sup> 하나님의 ‘공유적 속성’은 ‘지식’과 ‘거룩’과 ‘사랑’과 ‘의’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이 ‘선’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아만두스 플라누스(Amandus Polanus von Polansdorf)에 따르면 하나님의 ‘선’은 모든 것의 원인이 된다.<sup>18</sup> 그리고 ‘공유적 속성’은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면서 동시에 아담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할 자라는 것을 알게 한다. 그런가하면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부여한 세 가지 직분을 통해 하나님 자신을 표현해낸다. ‘공유적 속성’과 관련된 ‘왕’의 직분은 권세를 통해 다스리되 ‘종과 같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가운데 다스림이 이루어져야 할 직분이었

14 매튜 헨리, 『창세기』, 원광연 역 (고양: 크리스찬다이제스트, 2008), 44.

15 Zacharias Ursinus, *Commentary on The Heidelberg Catechism*, ed., G.W. Williard (Columbus, Ohio: Olive Tree Communications, 2004), 83.

16 J. Van Bruggen, *Annotation to The Heidelberg Catechism* (Winnipeg: Inheritance Publications, 1991), 99.

17 Louis Berkhof, *Systematic Theology* (Carlisle, PA: Banner of Truth, 1949), 69-82.

18 아만두스 플라누스, 『하나님의 영원한 예정』, 김지훈 역 (용인: 킹덤북스, 2016), 259-60: “...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것은 무엇이든지 선하게 뜻하시는 것이며, 그분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이든지 선하게 기뻐하시는 것이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그분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모두 다 선하다. ... 유기의 작정의 원인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라고 말하는 것은 정당한 것으로 이해한다.”

다.<sup>19</sup> 그리고 ‘선지자’의 직분은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경계’를 임의적으로 판단하여 지켜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을 따라 그 경계를 지켜내는 직분이었다.<sup>20</sup> 그리고 공유적 속성과 관련하여 ‘제사장’의 직분은 창조주이신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바르게 섬기도록 주어진 직분이었다.<sup>21</sup>

아담에게 주어진 ‘왕’, ‘선지자’, ‘제사장’의 세 가지 직분은 아담의 속성이 된 하나님의 ‘공유적 속성’과 함께 하는 직분으로, 하나님의 ‘선한 창조’의 근본을 표현해내는 직분이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하나님의 형상’을 하고 있는 아담에게 나타나는 ‘공유적 속성’인 것처럼, 세 가지 직분은 하나님의 창조의 기쁨을 더하기 위해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아담 자신의 직무를 통해 드러내야 하는 직분이었다.<sup>22</sup> 따라서 아담에게 주어진 ‘공유적 속성’은 창조를 통해 피조 세계를 이룬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는 의미를 담고 있으니 아담에게 부여된 ‘왕’과 ‘선지자’, 그리고 ‘제사장’의 세 가지 직분은 하나님의 명령이 절대적으로 함께 하는 순종이 섭리 가운데 작성되어지는 직분이었다.<sup>23</sup>

## 2.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이룬 세 가지 직분

(1) ‘종과 같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가운데 다스리는 왕의 직분

창세기 1장 26절과 28절의 ‘다스리라’라는 말씀은 ‘지배하다(have dominion over)’, ‘치리하다’를 가리킨다.<sup>24</sup> 이것은 하나님을 대신한 대리적 통치자로서의 권한을 말하는 왕의 직분이 아담에게 주어졌음을 뜻한다.<sup>25</sup> 그리고 창세기 2장 19절은 아담에게 주어진 왕의 직분이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로 각종 짐승들을 이끌어 가셨다”는 것과

19 바우만, 『벨직 신앙고백서 해설』, 211-14.

20 Louth, ed., *Ancient Christian Commentary on Scripture, Old Testament I*, 59-60.

21 로스, 『창조와 축복』, 180

22 고든 루이스 · 브루스 데머리스트, 『통합신학』, 김귀탁 역 (서울: 부흥과개혁사, 2010), 347, 353.

23 웰렘 반 게메넨, 『구원계시의 발전사』, 권대영 역 (서울: 도서출판 솔로몬, 2017), 86-89

24 미들턴, 『해방의 형상』, 63.

25 젠트리 · 웰렘, 『언약과 하나님 나라』, 283-84; Gordon J. Wenham, *World Biblical Commentary : Genesis 1-15* (Colombia: Word, Incorporated, 1987), 33.

“그 짐승들의 이름을 짓도록 하신 것”은 두 가지 측면을 설명해주고 있다. 즉, 모든 짐승으로 하여금 본능적으로 아담의 직분 앞에 복종하도록 하였으며, 아담으로 하여금 왕의 직분을 통해 하나님의 피조 세계를 잘 다스리도록 하셨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여기에 대해 칼빈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모든 피조물들을 다스릴 권세를 주셔서 동물들이 사람에게 복종하도록 하였으며,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 하나님의 공의와 창조질서를 유지하도록 하셨다”라고 창세기 주석을 통해 밝힌다.<sup>26</sup> 헨리는 이 장면을 ‘왕의 즉위식’으로 표현하고 있으며,<sup>27</sup> 벌코프(Louis Berkhof)는 인간이 모든 피조물들 가운데 왕의 입장에 서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다.<sup>28</sup>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들을 향해 그리고 아담을 향해, 아담에게 주어진 왕의 직분은 아담 개인의 권위와 권세를 세우기 위한 직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세우는 하나님 나라의 공의로운 직분이 될 것을 만천하에 공포한다. 창세기 2장 17절에서 하나님은 모든 짐승들을 “아담에게로 이끌어 가시니”라는 말씀과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라는 말씀을 이것을 잘 대변해주고 있다. 여기에 대해 아우구스티누스(Aurelius Augustinus)는 모든 짐승들은 본능적으로 하나님께 복종하는 존재임을 알게 하였으며, 아담은 세상의 어떤 피조물과도 비교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밝히는 장면으로 설명하고 있다.<sup>29</sup>

아담이 짐승의 ‘이름’을 짓는다는 것은 그의 ‘왕의 직분’에 따른 ‘주권’을 부각시키는 장면이다.<sup>30</sup>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라는 장면은 아담의 ‘왕의 직분’에 대한 권세와 권위는 ‘종과 같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가운데 행해져야 할 직분이라는 것을 나타내 보이고 있다. 바빙크는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 창조는 하나님 자신이 기뻐하는바 모든 것을 행한 것이며, 하나님의 의지적 산물임과 동시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목적

26 존 칼빈, 『칼빈성경주석 1: 창세기 I』, 존 칼빈 성경주석 출판위원회 역 (서울: 성서연구원, 2012), 70-71.

27 헨리, 『창세기』, 66.

28 Berkhof, *Systematic Theology*, 223.

29 Louth, ed., *Ancient Christian Commentary on Scripture, Old Testament I*, 64-65.

30 해밀턴, 『NICOT 창세기 I』, 189.



을 가지고 있다고 『개혁교의학』(*Reformed Dogmatics*)을 통해 밝힌다.<sup>31</sup> 아담에게 주어진 ‘왕의 직분’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 세계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과 주관하심을 드러내는 직분이었다.

하나님께서 피조 세계를 창조하시고, 이후에 피조 세계를 진화적이거나, 자연 발생적인 차원에 그 다음을 맡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속되는 통치와 다스림이라는 하나님의 주권적이고, 주관하심에 의해 피조 세계는 다스려진다.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영광 받을 것을 계획하셨으며, 그 목적을 이루는 측면에서 왕의 직분이 아담에게 주어지게 된다. 따라서 아담에게 주어진 ‘왕의 직분’은 영광을 받고자하는 하나님 측면에서 주어진 직분이며, 동시에 아담 측면에서는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이루기 위해 ‘종과 같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가운데 피조 세계를 다스려야 하는 측면에서 주어진 직분이었다.

## (2)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을 따라 그 경계를 지켜내는 선지자의 직분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이룰 ‘선지자 직분’에 대한 것은 창세기 2장 15절과 17절의 말씀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15절의 ‘지키게 하시고’는 기본 어근이 ‘쉬마르(שמר)’로서 ‘보존’, ‘간수(keep)’, ‘감시’, ‘준수’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으며, ‘수호하다’, ‘보호하다’로 번역되어 신적 위엄을 나타내기도 한다.<sup>32</sup> 그리고 17절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는 말씀은 아담에게 부여된 직분은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준행하는 위치에 있는 직분이라는 것을 말한다. 특히 아담은 자신의 직분을 감당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늘 귀를 기울이는 직분자가 되어야 했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하는 선지자의 직분자라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에덴동산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둔 것은 두 가지의 관점을 나타내고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준행할 때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세상의 모든

31 Herman Bavinck, *Reformed Dogmatics* Vol. 2 (Grand Rapids: Baker Academic, 2003), 407.

32 해밀턴, 『NICOT 창세기 I』, 183; 데스몬드 알렉산더, 『에덴에서 새 예루살렘까지』, 배용덕 역 (서울: 부흥과개혁사, 2014), 29.

권세와 생명을 누리는 길이 아담에게 주어지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그는 생명을 잃어버릴 뿐만 아니라 저주 가운데 놓여지게 될 것을 보여준다.<sup>33</sup> 창조의 관점에서 볼 때, 아담이 비록 왕권을 부여받은 직분자라 할지라도 그 직분은 경계가 있다는 것이며, 아담은 그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을 선지자의 직분을 통해 깨닫게 한다.<sup>34</sup> 크리소스토무스(Johannes Chrysostomus)에 의하면, 에덴동산은 자유로운 것을 말하기 전에 창조의 관점에서 먼저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경계가 있다는 것과 그 경계를 지켜나가는 것이 아담에게 주어진 직분이라는 것을 알게 한다.<sup>35</sup>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잘 지켜나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늘 귀를 기울이는 선지자 직분에 근거하여 하나님의 피조 세계를 잘 관리하는 것이 피조된 아담의 창조 원리에 따른 몫이었다.<sup>36</sup> 아담이 선지자의 직분을 감당한다는 것은 자신이 먼저 하나님을 향한 ‘참된 지식’을 가진 자가 되어야 하며, 그리고 ‘참된 지식’을 바르게 세우는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창조 원리와 함께 하는 ‘의’를 지켜내는 계명의 준수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따라서 아담은 자신을 하나님의 대립되는 위치에 두거나,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굴복시키기를 거부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해 죄를 범하는 행위가 되었던 것이다.<sup>37</sup> 아담은 선지자 직분의 바른 수행을 통해 ‘생육’, ‘번성’, ‘충만’에 따른 하나님의 계속되는 창조에 대한 선함이 그대로 묻어나는 기쁨이 수반되도록 하나님의 ‘의’를 지켜내는 계명의 준수자가 되어야 했다.

33 Herman Bavinck, *Reformed Dogmatics* Vol. 3 (Grand Rapids: Baker Academic, 2004), 66-67.

34 Louth, ed., *Ancient Christian Commentary on Scripture, Old Testament I*, 59-60.

35 Louth, ed., *Ancient Christian Commentary on Scripture, Old Testament I*, 59-60.

36 로스, 『창조와 축복』, 180: “‘지키다’라는 단어는 명령들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인다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Wenham, *World Biblical Commentary : Genesis 1-15*, 67-68, 72-75.

37 Berkhof, *Systematic Theology*, 243: “The essence of that sin lay in the fact that Adam placed himself in opposition to God, that he refused to subject his will to the will of God, to have God determine the course of his life; and that he actively attempted to take the matter out of God’s hand, and to determine the future for himself.”

### (3)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바르게 섬기는 제사장의 직분

제사장의 직분은 창세기 2장 15절의 ‘경작하며’라는 말씀과 관련되어 있다. ‘경작하며’라는 말씀은 ‘아바드(אָבַד)’로서 ‘일하다’, ‘봉사하다’, ‘섬기다’, ‘시중 들다(work, serve)’와 함께 ‘예배하다’, ‘순종하다’의 의미로도 사용이 된다. 스스로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을 가리킨다. 즉, 아담에게 가꾸는 자로서 뿐만 아니라 동시에 여호와를 섬기는 자로서 직분이 주어진 것을 나타내 보이고 있다.<sup>38</sup> 존 페스코(J. V. Fesko)에 따르면, ‘경작하며’로 번역된 ‘아바드’는 직무와 관련된 것으로, 성막에서 제사장의 임무를 묘사 할 때도 쓰인다.<sup>39</sup> 다시 말하면, 에덴동산에서의 ‘섬기는 것’은 곧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행위’가 되었으며, 하나님의 창조가 더욱 빛을 발하도록 직분을 감당하는 모습이였다.

인간이 죄를 범하기 전, 에덴동산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예배의 모습은 제사의 방식으로 그 모습이 비춰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쁨으로 영광을 돌리는 ‘봉사’와 ‘섬김’이라는 ‘경작하는’ 모습 속에서 비춰지고 있었다.<sup>40</sup> 그러나 인간이 죄를 범한 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섬기는 방식이 아니라 중보적 기능이 따르는 제사 방식이 성립되어야만 했다. 창세기 4장 26절, 셋이 그의 아들 에노스를 낳고 하나님께 드렸던 가정 예배에서 처음 그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죄를 범한 인간은 하나님을 직접 대면할 수 없었기에 중보적 조건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으며, 이것이 제사 방식을 동원한 예배의 모습으로 나타났던 것이다.

38 존 H. 윌튼, 『NIV 적용주석, 창세기』, 김일우·전광규 역 (서울: 한국성서유니온선교회, 2007), 244-45, 262: “동사 ‘아바드(אָבַד)-섬기다’는 사람들이 스스로를 부양하기 위해 해야 할 무엇인가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해야 할 무엇인가를 가리킨다. ... 그 동산에서 아담의 의무는 ... 섬기는 일을 하는 것은 고귀한 특권이다. ... 마치 제사장들이 성전이나 성막을 위해 감당하던 사명과 같았다.”; 로스, 『창조와 축복』, 180: “‘경작하며(다스리라)’는 여호와를 예배하고 섬기는 사람이 가질 수 있는 가장 고귀한 특권을 말한다. 동산에서 사람이 어떠한 일에 종사하긴 그것은 여호와를 향한 영적 섬김의 용어로 표현되었다.”

39 존 페스코, 『태초의 첫째 아담에서 종말의 둘째 아담 그리스도까지』, 김희정 역 (서울: 부흥과개혁사, 2012), 85.

40 해밀턴, 『NICOT 창세기 I』, 183: “인간은 섬김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섬기기 위해 동산에 있게 된다”

『벨직 신앙고백서』 제12조를 보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물들은 본질적으로 창조주인 하나님을 섬기도록 창조되어졌으며, 각각의 창조물 가운데 주어진 사역과 기능 또한 이를 위해 주어진 것이다.<sup>41</sup> 『웨스트민스트 대요리문답』과 『웨스트민스트 소요리문답』의 제1문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제일의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이라며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창조 목적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sup>42</sup> 아담에게 부여된 세 가지 직분은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이루어가는 원형을 지닌 직분이었다. 그리고 『웨스트민스트 대요리문답』과 『웨스트민스트 소요리문답』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은 아담에게 주어진 본연의 직분 속에는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바르게 섬기도록 제사장의 직분이 주어졌다는 것을 알게 한다.

### 3. 아담의 세 가지 직분이 주어진 시기와 창조론과의 관계

#### (1) 명시적 시기와 창조론과의 관계

하나님께서 사람을 ‘자기의 형상을 따라’ 지으셨다는 것은 존재와 가치적인 측면에 있어서 사람은 존귀하게 창조되었다는 것이며, 목적적인 측면에서 사람은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이루기 위해 창조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sup>43</sup> 아담에

41 Philip Schaff, ed., “The Belgic Confession”, *The Creeds of Christendom* Vol. III (Grand Rapids: Baker Book House Company, 1996), 395: “We believe that the Father, by the Word—that is, by his Son—created of nothing the heaven, the earth, and all creatures, as it seemed good unto him, giving unto every creature its being, shape, form, and several offices to serve its Creator: that he doth also still uphold and govern them by his eternal providence and infinite power for the service of mankind, to the end that man may serve his God.”

42 Dennison, ed., *Reformed Confessions* Vol 4, *Westminster Larger Catechism* A.D. 1648, 299: “(Quest. 1). What is the chief and highest end of man? (Ans). Man’s chief and highest end is to glorify God (Rom. 11:36; 1 Cor. 10:31), and fully to enjoy him for ever (Ps. 73:24-28; John 17:21-23).”; Dennison, ed., *Reformed Confessions* Vol 4, *Westminster Shorter Catechism* A.D. 1647, 353: “(Quest. 1). WHAT is the chief end of man? (Ans). Man’s chief end is to glorify God (1 Cor. 10:31; Rom. 11:36), and to enjoy him for ever (Ps. 73:25-28).”

43 G. I. 윌리엄슨,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 강해』, 문성출 역 (대구: 양문출판사, 1988), 11-15.

게 부여된 세 가지 직분의 접촉점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는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 앞서게 된다. 그리고 ‘형상’에 따른 ‘공유적 속성’이 세 가지 직분과 접촉점을 이루어 기능한다.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이루기 위해 주어진 아담의 세 가지 직분에는 하나님의 속성이 그대로 드러나 있다. 그 이유는 세 가지 직분의 수행이 아담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사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이루는 사역이었기 때문이다.<sup>44</sup>

아담에게 세 가지 직분이 주어진 시기 또한 본태성에 의한 것이 아니라 아담을 창조할 목적과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관점에서 파악되어진다.<sup>45</sup> 아우구스티누스는 우리가 비록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았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 안에서 유일무이한 삼위일체를 찾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말한다.<sup>46</sup> 사람은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시켜야만 한다. 세 가지 직분은 이런 관점 속에서 부여된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직분을 부여하기 전, 자신이 창조하신 피조 세계를 돌아보며,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말씀한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선한 창조’를 이루었음을 엿볼 수 있다. 여기에 대해 칼빈은 창세기 주석에서 “모세가 여기서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모든 것은 하나님의 목적과 이유에 의해 창조되었다는 것을 말한다”라며 사람에게 직분이 주어지는 이유 또한 하나님의 선한 창조 목적을 이루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에 있다는 것을 알게 한다.<sup>47</sup>

창세기 1장 26절에 의하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시기 전, 사람을 무엇 때문에 창조하셨는지 그 목적을 분명히 드러내 보이신다.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나님께서

44 Anthony A. Hoekema, *Created in God's Image* (Grand Rapids: Eerdmans, 1994), 75-76.

45 데이비드 칼훈, 『칼뱅을 읽다』, 홍병룡 역 (서울: 죠이선교회, 2108), 221: “신명이 15장 설교에서 칼빈은 이렇게 설교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유일할 내려 주시는 만큼, 우리는 이웃에게 선을 행하여 그것이 그분 덕분임을 인정하도록 주의하자.’ ...”,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의 소유주가 아니라 청지기인 것은 원래 사람에게 부여된 직분의 모습이었다.

46 Augustine, “The Perfection of the Image in the Contemplation of God”, in *Augustine-Later Works*, ed. John Burnaby (London: Westminster John Knox Press, 2006), 103, 108-09.

47 칼빈, 『칼빈성경주석 1: 창세기 I』, 52.

는 창조하신 피조 세계의 피조물들을 자신을 대신하여 다스릴 자로 사람을 창조할 것을 계획하신다.<sup>48</sup> 이때 “다스리게 하자”를 통해 권세에 따른 직분을 사람에게 주어 피조 세계의 피조물들을 다스리게 할 것을 ‘명시적(明示的)’으로 나타낸다. ‘명시적 시기’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직분을 주어 그의 직무를 통해 피조 세계를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걸맞도록 다스리게 할 것을 계획한 ‘작정의 시기’를 말하며, 그 시기는 ‘영원 전’이었다. 아담에게 세 가지 직분이 본태성에 의한 것이 아니라 부여된 직분이며, 직분이 주어진 시기 또한 명시적인 것이 거론되는 것은, 아담에게 피조 세계를 다스리는 권세가 주어졌다 할지라도 그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권세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 그리고 아담에게 주어진 권세는 아담 자신의 영광을 피하는 권세가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하나님의 창조의 근원을 바르게 세우는 권세가 되어야한다는 창조의 원리를 명시시키고 있다.

## (2) 확정적 시기와 창조론과의 관계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기 전, 자신의 창조 목적을 이루기 위해 사람에게 세 가지 직분이 주어질 것이 미리 계획되어졌다면, 에덴동산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그 일을 공식적으로 실행하는 ‘확정적 시기’의 장소였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 세계와 피조물들을 공의롭게 다스려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이루어가도록 직분에 대해 말씀한다. 창세기 2장 15절에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동산’에 두시며, ‘경작하게’ 하고, ‘지키게’ 하신다. 바빙크에 따르면 창세기 1장 28절에서 나타나는 땅의 통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은 인간에게 부여된 임무로 이루어질 것을 말한다.<sup>49</sup> 아담에게 하나님의 피조 세계를 다스릴 직분과 그 직분이 인간 창조 이후에 주어진다.

아담에게 주어진 세 가지 직분과 관련하여, 직분이 주어질 것이 명시적으로 계획되었던 것이 ‘작정의 시기’라고 본다면 직분의 ‘확정적 시기’는 하나님의

<sup>48</sup> Hoekema, *Created in God's Image*, 14.

<sup>49</sup> Bavinck, *Reformed Dogmatics* Vol. 3, 32-33.

창조 목적을 이루어가는 ‘섭리적 실행 단계’였다. 벨코프는 “인간의 창조 앞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이 선행된다”라고 말한바 있다.<sup>50</sup> 하나님께서는 직분의 ‘확정적 시기’를 통해 아담에게 자신이 지닐 직분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선함이 필히 수행되어야 할 것을 창조론적 관점에서 말씀하셨고, 명령하셨다. 그리고 그 전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를 운행하시니라”(창 1:2)라는 말씀을 성경은 명시시키고 있다. 이 말씀은 세상이 하나님의 질서의 원리와 통치 가운데 놓여진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칼빈의 주장처럼,<sup>51</sup> 아담에게 주어진 세 가지 직분에 대해서도 두 가지 근본이 적용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아담에게 직분이 확정적으로 주어진 것은, 사람은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을 벗어나서는 안 된다는 행위에 대한 경각심과 함께 아담은 하나님 앞에 항상 겸손해야 한다는 창조론적 관점의 두 근본을 함께 조명해주고 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어질 직분을 계획하셨던 ‘명시적 시기(창 1:26)’와 에덴동산에 사람을 두고 그것을 ‘경작하게’ 하고, ‘지키게’한 ‘확정적 시기(창 2:15)’는 아담에게 세 가지 직분이 부여된 것을 단순히 시간적 개념으로 나누거나 그런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을 거부하고 있다. ‘명시적 시기’와 ‘확정적 시기’의 구분은 창조에 따른 하나님의 전지함의 지혜를 엿보게 하며, 그 시기와 때에 있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계획되어진 것이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 주관되었다는 창조론적 사실을 재발견하게 한다.<sup>52</sup> 그리고 여기에 대해 아담은 순복하는 모습으로 자신에게 주어진 직분을 수행해야 한다는 것을 돌아보게 한다.

<sup>50</sup> Berkhof, *Systematic Theology*, 197-99.

<sup>51</sup> 칼빈, 『칼빈성경주석 1: 창세기 I』, 49.

<sup>52</sup> Calvin, *Inst* I.16.1: 1. Creation and Providence inseparable join. “... But faith ought to penetrate more deeply, namely, having found him Creator of all, forthwith to conclude he is also everlasting Governor and Preserver — not only in that he drives the celestial frame as well as its several parts by a universal motion, but also in that he sustains, nourishes, and cares for, everything he has made, even to the least sparrow [cf. Matthew 10:29].”; Calvin, *Inst* I.16.4: 칼빈은 모든 피조물들의 활동은 우발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없으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한다.

### III. 아담의 세 가지 직분의 본질적 기능과 창조론과의 관계

#### 1. 중보적이며, 일체적 모습을 가진 세 가지 직분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부여한 ‘왕’과 ‘선지자’, ‘제사장’, 세 가지의 직분은 아담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직분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 주어진 직분이며, 아담이 비록 권세를 가진 위치에 놓여져 있을지라도 그 위치는 하나님을 대리하고, 인류의 머리가 되는 중보적 위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때 중보적 위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수종을 드는 자로서의 중보적 위치를 말한다.<sup>53</sup> 아담은 하나님께 수종을 드는 자로서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인류의 대표인 머리로서 ‘행위 언약’을 체결한다.<sup>54</sup> ‘행위 언약’은 아담에게 주어진 세 가지 직분 수행이 그 바탕을 이루게 된다. 그리고 아담에게 주어진 세 가지 직분이 중보자로서 기능과 역할을 감당해낼 때, 별도의 모습으로 보면 개별적인 직분이 되지만 세 직분은 떨어져서 별도로 수행되는 직분이 아니라 마치 하나님의 삼위가 일체의 모습으로 모든 역사를 이루어갔던 것처럼, 일체를 이루어 ‘행위 언약’에 따른 직분을 수행하게 된다.

판 브루헌에 따르면, 둘째 아담이었던 그리스도에게 ‘기름부음 받은 자’로서 세 가지 직분이 주어질 때, 세 가지 직분은 외형적으로는 세 가지의 모습을 하고 있고, 세 가지로 그 역할들이 설명될지라도 실제적 행위에 있어서는 세 가지 직분이 일체를 이루어 중보적 사역을 이루게 된다. 이런 모습은 첫째 아담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났다.<sup>55</sup> 에덴동산에서 마귀가 아담을 유혹할 때, 아담은 마귀의 유혹을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으로부터 이미 부여받았으며, 그 능력이 세 가지 직분 가운데 주어졌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선지자의 직분은 마귀의 유혹을 구별해낼 분별의 능력을 가지고 있었으며, 제사장의 직분

<sup>53</sup> Calvin, *Inst* II.12.4.

<sup>54</sup> Schaff, ed., “The Westminster Shorter Catechism”, *The Creeds of Christendom* Vol. III, 679; A. A. Hodge, *Commentary on The Confession of Faith* (Philadelphia: Presbyterian Board of Publication, 1869), 154: “The first covenant made with man was a covenant of works, wherein life was promised to Adam, and in him to his posterity, upon condition of perfect and personal obedience.”

<sup>55</sup> Van Bruggen, *Annotation to The Heidelberg Catechism*, 101.



은 기록을 지켜내고, 왕의 직분은 하나님께서 친히 다스리시는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마귀의 불의함을 공의로 다스릴 능력을 가지고 있었으며, 그렇게 다스려야 했다.<sup>56</sup> 이때 세 가지 직분은 따로 작동하는 직분이 아니라 마치 삼위일체처럼 동시에 작동되어 나타나게 된다. 세 가지 직분 가운데 어느 하나의 직분이라도 소홀함을 가지게 된다면, 그것은 그 직분만의 문제가 아니라 아담이라는 인격 안에서 전체적으로 발생하는 직분 전체의 문제가 되는 것이었다.

하나님의 공의를 지켜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지켜내고, 하나님의 기록을 지켜내는 일에 있어서 세 가지 직분은 각각의 기능을 가지고 있었지만 어느 하나 소홀함이 없이 일체를 이루는 가운데 언약을 지켜야 했다. 아담에게 주어진 세 가지 직분은 피조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창조적 아름다움을 더욱 풍성하게 가꾸어가는 중보적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으며, 이 가운데 영원한 생명을 논하는 ‘행위 언약’이 있었던 것이다.<sup>57</sup> 아담이 ‘행위 언약’에 대해 실패했던 가장 중요한 요인은 일체의 모습으로 사역을 이루어가야 할 세 가지 직분이 창조적 아름다움을 지켜내야 하는 중보자로서의 각각의 위치를 망각했기 때문이다. 아우구스티누스에 의하면, 하나님의 창조적 아름다움을 지켜내지 못한 아담의 세 가지 직분은 세상을 ‘죽음의 왕국’이 지배하도록 만들어버렸으며, 하나님의 창조적 아름다움을 음란과 타락, 부패와 불의, 시기와 질투, 그리고 분쟁을 일삼는 나라로 변질시켜버렸다.<sup>58</sup>

## 2. 하나님 나라의 선한 본질을 지켜내는 세 가지 직분

‘하나님 나라’는 ‘최고의 선’이 행해지는 나라이다.<sup>59</sup> ‘선함’은 인간의 소유물이 아니며, 하나님의 속성으로부터 일어나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다.<sup>60</sup> 그리고 ‘선함’은 최고의 존재에게만 합당하게 불려지는 명칭이다.<sup>61</sup> 아퀴나스

56 바우만, 『벨직 신앙고백서 해설』, 229.

57 Berkhof, *Systematic Theology*, 235-36.

58 아우구스티누스, 『신국론』14.1-28, 성염 역 (왜관: 분도출판사, 2009), 1429-1539.

59 Bavinck, *Reformed Dogmatics* Vol. 3, 44-45.

60 Eberhard Busch, “God and Humanity”, 224-25.

61 Stephen Charnock, *Existence and Attribute of God* Vol. II (New York: Robert Carter & Brothers, 1865), 209.

(Thomas Aquinas)는 ‘선’을 신(God)만의 본질로 보고 있으며, 피조물은 그 ‘선하심’에 대한 보류로 여기고 있다.<sup>62</sup> 하나님의 선한 통치가 있는 곳을 가리켜 ‘하나님 나라’라 일컫는 것은 그 나라의 다스림의 본질이 ‘하나님의 속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sup>63</sup> 죄는 무법한 것을 말하며, 악은 하나님의 ‘지혜’와 ‘선’과 충돌한다.<sup>64</sup> 따라서 죄악은 하나님 나라의 본질이 될 수 없다. 만물은 하나님의 속성에 따라 선하게 창조되었다. 바빙크는 하나님의 ‘선하심’은 윤리적 속성들 가운데 첫 번째 위치에 놓여져 있을 뿐 아니라 자연을 통해서도 알려진다며,<sup>65</sup> 하나님의 ‘선하심’이 창조의 근본을 이루고 있다는 사실을 증거한다. 아담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선한 피조 세계’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에 흠과 티가 생겨나지 않도록 하나님 나라의 선한 본질을 지켜내는 직분자였다.

아담은 자신에게 부여된 세 가지 직분을 통해 하나님을 대신하여 피조 세계를 다스리는 권세자로서의 위치에 설 때, 자신의 직분은 하나님의 선한 본질을 잘 담아내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만 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하고 있는 아담은 하나님의 창조 원리에 따라 하나님의 선한 속성을 닮은 선량한 권세자로서 피조세계를 다스려야 하는 직분자였으며, 자신에게 주어진 세 가지 직분은 하나님의 통치가 참된 평강을 이루어간다는 것을 나타내는 모습이 되어야 했다. 따라서 아담은 자신에게 주어진 ‘왕’과 ‘선지자’, 그리고 ‘제사장’의 직분을 통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 세계에 대해 정의를 수호하며, 하나님 나라의 선한 본질을 드러내는 창조 원리의 근본을 지켜나가야만 했던 것이다. 여기에는 선과 악을 확연히 구별해낼 뿐만 아니라 권세를 통하여, 악에 대해서는 단호한 조치를 취하므로 악이 근접하지 못하도록 해야 하는 직분의 근본이 함께 하고 있었다.

하나님께서서는 아담에게 창세기 2장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sup>66</sup>의 열매는

62 토마스 아퀴나스, 『신학요강』 1.109, 박승찬 역 (교양: 나남, 2008), 201-02, 228.

63 마이클 리브스, 『선하신 하나님』, 장호준 역 (서울: 도서출판 북 있는 사람, 2016), 75, 88-89.

64 플라누스, 『하나님의 영원한 예정』, 286.

65 Bavinck, *Reformed Dogmatics* Vol. 2, 210.

66 Francis Turretin, *Institutes of Elenctic Theology* Vol. 1: *First through Tenth Topic*, trans. James T. Dennison, Jr (Phillipsburg, New Jersey: Presbyterian and Reformed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라는 말씀을 통해 아담으로 하여금 세 직분을 가진 자로서 권세를 앞세우기보다 자신이 먼저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다는 것과 하나님의 법에 순종해야한다는 것을 실정법을 통해 깨닫게 한다.<sup>67</sup> A.A. 핫지는 아담이 ‘선악의 열매’를 먹은 것을 가리켜 두 가지 죄목을 거론한다. 하나는 아담이 자신의 직분을 통해 하나님의 지혜를 의심한 ‘불신’의 죄였으며,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한 ‘불순종’의 죄였다.<sup>68</sup> 아담에게 주어진 세 직분이 하나님 나라의 본질을 지켜내기 위한 직분이었다는 것을 되새겨주고 있다. 세 가지의 직분을 부여받은 아담은 자신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바르게 세워지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의 세계를 향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진가를 드러내며, 하나님은 유일한 경배의 대상이 된다는 하나님 나라의 본질을 지켜가야만 했던 것이다.

로마서 12장 21절에서 바울은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권면한다. 하나님 나라의 속성을 담아내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근본 되는 자세를 말하고 있다.<sup>69</sup> 아담은 자신에게 부여된 세 가지 직분으로 선한 것을 만들어가는 위치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본질을 따라 하나님 나라를 아름답게 지켜나가는 직분으로서 중보적 사역자였다. 하나님의 창조의 본질에 따르면 선한 본성으로 지음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형상’이었던 아담은 본성적으

---

Publishing Company, 1992), 579 : “It would be better to see why it obtained this name. ... Rather it is so called both sacramentally (because it was an exploratory sign and a warning to avoid the experimental knowledge of evil equally with good) and eventually a posteriori by anticipation (inasmuch as from eating of it, he was really about to experience the difference between the good of obedience and the evil of disobedience, so that he who was unwilling to discern by precept, might discern by experiment: and he was to be taught by his own evil how much good he had lost, how much evil on the other hand he had drawn upon himself, from what a height of happiness, into what a profound abyss of misery, he had precipitated himself by sin).”

67 헨리, 『창세기』, 61-64.

68 A. A. Hodge, *Commentary on The Confession of Faith*, 148.

69 칼빈, 『칼빈주석: 로마서』, 박문재 역 (고양: 크리스찬다이제스트, 2013), 397: “... 악으로 악을 이기고자 하는 자는 자신의 원수에게 자기가 당한 것보다 더 큰 해악을 가할 수는 있을지 몰라도, 그것은 스스로 멸망을 자초하는 일이 된다. 왜냐하면, 그는 그렇게 행함으로써 마귀 편에 서서 싸움을 수행한 것이 되기 때문이다.”

로 선을 행하여 자신에게 주어진 직분을 준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항하여,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보다 쉬웠다는 사실이다.<sup>70</sup>

### 3. 나침판의 역학적 구조를 가진 세 가지 직분

아담에게 주어진 ‘왕’, ‘선지자’, ‘제사장’의 세 직분에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 세계에 대해 방향과 길을 바르게 제시해야 하는 나침판과 같은 인도적 역할이 있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자기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하신 그 속에는 하나님의 공유적 속성이 내포되어 있었으며, 그 속성 가운데에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선하심’을 드러내는 ‘공의’가 새겨진 속성이 있었다. 차녹(Stephen Charnock)에 따르면 하나님은 선하심이 없으면 하나님이기를 멈추게 될 것이며, 선하심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 되는 것을 멈추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의 존재와 속성』(*The existence and attributes of God*)을 통해 논한다.<sup>71</sup> 하나님의 ‘선하심’과 ‘거룩하심’의 속성은 하나님께서 피조하신 세계 속에서 하나님 자신이 기쁨을 누리는 기준이 되었다.<sup>72</sup>

세 직분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거룩하심’의 속성을 ‘공의’를 통해 바르게

70 cf) Ursinus, *Commentary on The Heidelberg Catechism*, 83-85: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선하게’ 그리고 ‘참된 의’와 ‘거룩함으로’ 창조했기에 본성적으로 죄를 범하는 것이 선을 지키는 것보다 더 어려웠다. Ursinus는 그 이유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5가지의 요소를 통해 설명하고 있다. “The image of God, therefore, comprehends: (1). The spiritual and immortal substance of the soul, together with the power of knowing and willing. (2). All our natural notions and conceptions of God, and of his will and works. (3). Just and holy actions, inclinations, and volitions, which is the same as perfect righteousness and holiness in the will, heart, and external actions. (4). Felicity, happiness, and glory, with the greatest delight in God, connected., at the same time, with an abundance of all good things, without any misery or corruption. (5). The dominion of man over all creatures, fish, fowls, and other living things. In all these respects, our rational nature resembles, in some degree, the Creator; just as the image resembles the archetype; yet we can never be equal with God. ... And wherever righteousness and true holiness are found, there is an absence of all evil, whether of guilt or punishment. This righteousness and true holiness, in which, according to the Apostle, the image of God consists, may also be taken for the same thing:...”

71 Charnock, *Existence and Attributes of God*. Vol. 2, 542.

72 Charnock, *Existence and Attributes of God*. Vol. 2, 544-46.

표현해내고, 그 ‘공의’를 통해 피조 세계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배하며, 영광을 돌리는 길을 제시하는 역학적 구조를 가지고 있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거룩하심’의 속성을 드러내는데 있어서 ‘왕의 직분’이 권세를 통해 전체를 바른 길로 이끌어가는 ‘공의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다면, ‘선지자의 직분’은 여기에 대해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집행되어지도록 그 길을 ‘인도하는 역할’이었다. 그리고 ‘제사장의 직분’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거룩하심’에 대해 피조 세계로 하여금 그 길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방향을 잡아주는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다. 이와 같이 아담의 세 직분이 가지고 있는 각각의 역할은 피조 세계를 이끌어가는 측면에 있어서 나침판으로서 각각의 역학적 구조를 나타내고 있었다.

칼빈은 『기독교 강요』 제1권 제17장을 통해, 세상이 우리의 판단력을 빼앗아 갈 때에도 하나님의 ‘공의’가 통제를 통해 그 길을 조명해주고 있음을 말한다.<sup>73</sup> ‘공의’는 하나님을 바라는 길을 열어주는 역할을 하며, 하나님을 찾게 할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과 ‘거룩하심’에 대해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길을 제시하는 나침판이었다.<sup>74</sup> 나침판은 길을 잃지 않고, 길을 바르게 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역학적 구조를 가지고 있다. 앞서서도 밝혔던 것처럼 아담에게 주어진 세 직분은 그 성격과 기능에 있어서 나침판으로서의 각각의 역학적 구조를 가지고 있다. 하나님의 속성을 담아내고 있는 아담의 세 직분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 세계를 하나님께로 바르게 인도해야 할 책임과 의무를 함께 지닌 나침판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중보적 위치에 있었다.

‘왕’과 ‘선지자’, 그리고 ‘제사장’의 세 가지 직분의 권세는 창조자요, 만물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의 ‘공의’를 통해 하나님을 바르게 찾고, 하나님 또한 우리에게 다가오고, 우리를 찾도록 하는 나침판과 같은 역할을 감당하는 것으로 그 모습이 나타났다.<sup>75</sup> 아담에게 주어진 세 가지 직분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거룩하심’을 이루어가기 위해 ‘공의’를 앞세운 나침판으로서, 피조 세계를 하

73 Calvin, *Inst* I.17.1.

74 Calvin, *Inst* I.2.1.

75 Herman Bavinck, *Reformed Dogmatics* Vol. 1 (Grand Rapids: Baker Academic, 2003), 328: “But Holy Scripture teaches us to know God in his coming to and search for human beings, in his compassion and grace, in his justice and his love.”

남계로 바르게 인도하는 직분이었다. 이와 같이 아담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속성을 묘사하는 아담의 행위와 연결되며, 그에게 주어진 세 가지 직분과 관련하여 나타난다. 그리고 ‘행위 언약’의 실효와 관련하여 ‘영생할 수 있는 길’과 ‘사망에 이르는 길’이 주어진 것은 아담의 세 가지 직분이 가진 나침판으로서의 역할이 얼마만큼 중요한 것인지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었다.

#### IV. 창조론에 따른 아담의 세 가지 직분과 자유 의지와 관계

##### 1. 창조론에 따른 세 직분과 근원적으로 하나를 이루는 자유 의지

아우구스티누스는 『신국론』, 『인내론』, 『고백론』, 『참된 종교』, 『요한 서간 강해』, 『자유 의지론』 등의 작품들을 통해 인간 본연의 문제에 대한 접근을 이룰 때, 창조의 근원과 함께하고 있는 아담의 관점에서 근원적인 접근을 적극적으로 이룬 신학자였다. 그의 『자유 의지론』은 여기에 대한 대표적인 신학 작품이라 말할 수 있다. 특히 인격적이며, 인간의 이성과 함께 하는 ‘자유 의지’가 ‘하나님 형상’과 결부되어 있다는 것을 『자유 의지론』에서 발견하게 되며, 이것이 아담의 ‘왕’과 ‘선지자’ 그리고 ‘제사장’의 세 가지 직분 수행과 직결 관계에 놓여 있다는 것을 알게 한다.

아우구스티누스에 따르면 하나님은 ‘최고의 선’으로서 악의 원인이 될 수 없다.<sup>76</sup> 이런 하나님께서 짐승과 달리 사람을 이성적으로 창조하시면서 그에게 ‘자유 의지’를 주게 된다. 이때 사람에게 주어진 ‘자유 의지’는 죄를 짓는 것이 가능하되 바르게 살 수 있도록 ‘자유 의지’가 주어진다.<sup>77</sup> 이것은 타락 전 아담의 모습이 ‘죄짓지 않을 수 있는(Posse non peccare)’ 상태로 창조된 것을 말하며, 아담에게 주어진 ‘자유 의지’에는 이중성에 대한 가능성이 열려 있었다는 것을 결정적으로 말한다. 아우구스티누의 『자유 의지론』에 따르면, 하나님께서는

76 Augustine, “On Free Will”, in *Augustine Earlier Writings*, ed. J. H. S. Burleigh, (Louisville, KY: Westminster John Knox Press, 2006), I. i - ii, 113-15.

77 Augustine, “On Free Will”, II. i, 134-35.

아담에게 ‘자유 의지’를 허락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 의지의 결정에 따른 이중적인 결과물을 함께 말씀하신다. 이 이중성은 선한 것에 대해서는 ‘선한 선물’을 받도록 하지만, 의지를 악하게 사용할 경우에는 그 행위에 따라 공정하게 처벌받도록 하셨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sup>78</sup> 이때 아담에게 주어진 ‘자유 의지’는 방縱(放縱)에 의한 ‘자유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법이 그 행위에 대해 기준을 이루고 있었으며, 여기에 대해 의지가 인격적인 자발성을 통해 그 법을 지켜, 준행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었다.

아우구스티누스의 『고백록』을 통해서도 드러나듯이 인간의 타락의 원인은 다른 것에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인간 의지의 왜곡에 따른 하나님을 향한 ‘교만’이었다.<sup>79</sup> 아우구스티누스는 아담의 문제를 거론할 때, 그에게 부여된 ‘자유 의지’를 매우 중요하게 다룬다. 왜냐하면 ‘자유 의지’는 하나님의 속성을 담아내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인간이 ‘인격적 존재’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으며, ‘자유 의지’는 하나님의 은혜와 떼어 수 없는 관계를 지니고 있었기 때문이다.<sup>80</sup> 아우구스티누스에 의하면 ‘자유 의지’는 별개로 작용하는 요소의 한 부분이 아니라 ‘형상’과 관련되어 작용하는 ‘인간의 의지’이다. 이때 ‘형상’이 ‘선’한 것처럼, ‘자유 의지’ 또한 ‘선한 것’으로 작용된다.<sup>81</sup> 아담의 세 가지 직분은 창조적 관점에 의하면 ‘형상’과 관련된 직분이다. 이것을 ‘자유 의지’와 접목시켜 볼 때, ‘형상’과 관련된 ‘자유 의지’는 ‘형상’과 관련된 아담의 세 가지 직분인 ‘왕의 직분’과 ‘선지자의 직분’, 그리고 ‘제사장의 직분’과 긴밀하게 연결되어져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며, 질서의 하나님이다. 아담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바르게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피조 세계를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아담 자신의 의지가 하나님에 대해 순종하는 행위를 수반해야만 했다. ‘아우구스티누스의 사상’을 연구하던 에티엔느 질송(Etienne Gilson)은 ‘인간의 의지’에

78 Augustine, “On Free Will”, II. i, 135.

79 어거스틴, 『성 어거스틴의 고백록』, 선한용 역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12), 215-17, 222-23, 227-28, 233.

80 Augustine, “Man-Sin-Grace”, in *The Later Christian Fathers*, ed. Henry Bettenson (Great Britain: The Guernsey Press co. Ltd, 1984), 192-94.

81 Augustine, “On Free Will”, II. xviii, 166.

의해 가질 수 있는 최상의 자유 선택은 인간이 신에게만 종속되는 것이라고 하였다. 왜냐하면 최상의 자유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이다.<sup>82</sup> 아담에게 주어진 세 가지 직분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때, 그 영광은 기계적인 주입식에 따른 반응의 결과가 아니라 아담 자신의 ‘자유 의지’와 결부된 직분 수행의 결과를 인격적으로 받으신다. 그러나 아우구스티누스의 『자유 의지론』에 따르면, 아담의 ‘자유 의지’는 하나님께 자신을 종속시킨 것이 아니라 마귀의 유혹에 이끌리어 정욕에 의해 지배당하게 된다. 이로 인해 그에게 주어진 풍부한 덕성들이 박탈당했으며, 그 결과 반궁에 처하게 되었다.<sup>83</sup> 결국 왜곡된 ‘자유 의지’는 자신에게 주어진 세 가지 직분에 대한 망각을 불러일으켰으며, 직무 유기에 따른 죄악으로 말미암아 아담이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벗어나게 만들었던 것이다.<sup>84</sup>

『자유 의지론』 제3권에서 아우구스티누스는 ‘자유 의지’에 대해 두 가지를 말한다. 하나는 “자유 의지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며,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야만 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sup>85</sup> ‘자유 의지’는 인간의 본성뿐만 아니라 필연성과도 연결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아담에게 주어진 ‘자유 의지’는 행동하는 자유 또는 마음대로 하는 방종의 ‘자유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올바로 행동하기 위해서” 주어진 의지였다.<sup>86</sup> 아담의 ‘자유 의지’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왕’과 ‘선지자’, 그리고 ‘제사장’의 직분은 하나님을 향해 절대적으로 종속적인 관계를 가지지 않을 경우 언제든지 ‘교만’의 모습으로 자신을 드러낼 수 있는 직분이었다. 아담이 마귀에 의해 유혹당했을 때 자신에게 주어진 세 가지 직분이 하나님을 향해 절대적 순종과 복종의 모습을 취하지 않았으며, 그 즉시 하나님을 불신하고, 대적하는 교만한 모습으로 나타났던 것을 볼 수 있다.

82 에티엔느 질송, 『아우구스티누스 사상의 이해』, 김태규 역 (서울: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2011), 319-21.

83 Augustine, “On Free Will”, I. xi, 125-26.

84 Augustine, “On Free Will”, I. vii-xi, 121-26; 질송, 『아우구스티누스 사상의 이해』, 290-92.

85 Augustine, “On Free Will”, III. i, 169-72.

86 Augustine, “On Free Will”, II. xviii, 164-65.



아우구스티누스와 끊임없는 논쟁을 벌였던 펠라기우스는 인간의 구원을 하나님의 은혜에 두는 것이 아니라 인간 본성을 강조하는 ‘자유 의지’에 두며, 구원을 낙천적으로 바라본다.<sup>87</sup> 그러나 아우구스티누스는 인간의 ‘자유 의지’ 앞에 하나님의 은혜를 내세운다. 그 이유는 인간의 ‘자유 의지’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선’에 의해 도움을 받지 않으면 악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sup>88</sup> 펠라기우스의 결정은 아담에게 주어진 세 가지 직분을 염두에 두지 않았다. 그는 하나님의 형상에서 비롯된 속성과 ‘하나님의 선하심’과 ‘거룩하심’을 이루어 가는데 있어서 아담에게 주어졌던 ‘자유 의지’가 그에게 부여되었던 세 가지 직분과 근원적으로 함께 하고 있었다는 것을 무시하였다. 그 결과 펠라기우스는 인간의 자유 의지를 창조적 원리를 따르는 위치에 두는 것이 아니라 자력적인 해결의 능력 위에 두는 오류를 범하게 되었다.

## 2. 세 직분의 인격적 직무 수행을 나타내는 자유 의지

아우구스티누스는 『삼위일체론』을 통해 다음과 같은 주장을 제기한다. “인류는 천상에 대한 지식을 소중하게 여기지만, 그 지식보다 자기 자신을 아는 일을 앞세우는 사람이 더 훌륭하다.”<sup>89</sup> 아우구스티누스는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이 “하나님을 깨달아 아는 것”을 가리켜 “자기 자신을 아는 일”로 표현하고 있다. 아우구스티누스에 의하면, 아담이 하나님의 형상에 따른 완전함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형상에 걸맞은 두 가지의 모습을 갖추어야만 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바에 대해 순종하는 직무 수행의 자세를 잃지 않아야 했으며, 하나님을 섬기는 직무 수행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이루어가는 자세를 잃지 않는 것이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요한 서간 강해』를 통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아담이 죄를 범한 것을 가리켜 “하나님의 명령을 업신여기고, 그 뜻에 불순종한 자”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다.<sup>90</sup>

87 포시디우스, 『아우구스티누스의 생애』, 이연학 · 최원오 역 (왜관: 분도출판사, 2009), 82: 각주 77) 재인용.

88 Augustine, “Man-Sin-Grace”, 204-06.

89 아우구스티누스, 『삼위일체론』, 성염 역 (왜관: 분도출판사, 2015), IV.1.1, 393.

90 아우구스티누스, 『요한 서간 강해』, 195-97.

사람의 이성과 결부되어 있는 '자유 의지'에 대해 오리게네스는 "이성은 그 본성 안에 선악을 인식하는 능력이 있으며, 이 능력은 선악을 인식하는데 있어서 선을 선택하고 악을 거부하게 된다."<sup>91</sup>라며 아담에게 주어진 '자유 의지'는 아담으로 하여금 인격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선택이었다는 것을 알게 한다.<sup>92</sup> 아우구스티누스의 『신국론』(*The City of God*)에 의하면,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계명을 내려 그의 '자유 의지'를 통해 계명을 지키도록 하였으며, 아담은 본성적으로 창조주 하나님을 진정한 주인으로 섬기도록 하였다.<sup>93</sup> 계명의 준수와 하나님을 섬기라는 명령은 직분에 따른 직무를 가리키며, 징벌이 따르는 것은 그 직분은 법적인 효력을 가지고 있는 직분이라는 것을 증거한다.<sup>94</sup>

아우구스티누스는 『요한 서간 강해』에서 아담의 죄를 언급하면서, 아담이 지은 죄는 순간적 판단과 실수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 인격적으로 대항하는 의도적인 죄였음을 지적하고 있다.<sup>95</sup> 이때 아담이 범한 죄는 자신에게 주어진 세 가지 직분의 직무 수행이 '자유 의지'와 결부되어 인격적으로 범한 사건이었다. 뿐만 아니라 아우구스티누스는 『참된 종교』에서 아담은 '자유 의지'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 인간 본성을 왜곡시키게 되었다며 '자유 의지'를 통해 자신에게 주어진 직분을 인격적으로 이탈했다는 사실을 밝힌다.<sup>96</sup> 특히 창세기 2장 17절의 '행위 언약'은 하나님께서 창조한 피조 세계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에 대해 순종해야 하는 질서의 원리가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이 원리 안에는 사람의 '자유 의지'를 바탕으로 한, 세 가지 직분이 인격적으로 순종하며 직무가 수행되어야 할 것을 함께 말하고 있었다. 그러나 '자유 의지'를 이루고 있는 아담의 세 가지 직분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하나님

91 오리게네스, 『원리론』 III.1.3, 이성효 외 3인 역 (서울: 아가넷, 2014), 554.

92 오리게네스, 『원리론』 III.1.20, 587-91.

93 Augustinus, *The City of God* Vol. I: I-XIII, XII.21, ed., Marcus Dods (Edinburgh: T.&T. Clark, 1891), 513-14.

94 Philip Schaff, *History of The Christian Church* Vol. III (New York: Charles Scribner's Sons, 1922), 497-98.

95 아우구스티누스, 『요한 서간 강해』, 195.

96 아우구스티누스, 『참된 종교』, 성염 역 (왜관: 분도출판사, 2011), 157-65.

나라의 창조 질서에 따른 원리를 깨뜨리는 죄를 범하게 된다.<sup>97</sup>

‘왕’과 ‘선지자’, 그리고 ‘제사장’의 세 가지 직분의 수행이 ‘자유 의지’를 수반하고 있다는 것은 세 직분의 직무가 ‘인격적 직무’라는 것을 단적으로 증거해주는 장면이다. 아담의 ‘자유 의지’에 따른 세 가지 직분의 직무 유기는 하나님의 창조 세계와 하나님 나라의 본질에 대해 두 가지의 오류를 만들게 된다. ‘선’으로 구성되어 있는 피조 세계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악’이 들어올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말하는 창조 세계의 ‘선하심’이라는 아름다움 위에 ‘가시와 엉겅퀴’를 만들게 된다.<sup>98</sup> ‘가시와 엉겅퀴’에 대해 아우구스티누스는 아담으로 인해 ‘땅이 받은 저주’와 불순종에 따른 ‘인간의 삶의 고통’을 그리고 크리스스토무스는 ‘삶의 형벌’로, 터툴리아누스는 ‘육’이라는 흙에서 생겨난 죄의 상징’으로 표현하고 있다.<sup>99</sup>

## V. 마치면서

우르시누스의 *Commentary on The Heidelberg Catechism* 제6문 2항의 해설에 의하면, 하나님은 만물을 목적 없이 창조하지 않으셨으며, 자신이 창조한 피조물을 향해 이유 없이 역할을 부여하지 않으신다.<sup>100</sup> 창조는 창세 전, 하나님의 전지성에 의해 모든 것들이 계획되었으며, 창조는 그 계획에 따라 실행된 것이다.<sup>101</sup> 아담이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것은 아담은 하나님의 ‘공유

<sup>97</sup> Thomas Boston, *Human Nature in its Fourfold State* (Carlisle, PA: The Banner of Truth Trust, 2015), 39-41: “A creature, as a creature, must acknowledge the Creator’s will as its supreme law; for, as it cannot be without him, so it must not be but for him, according to his will; yet no law obliges until it be revealed. And hence it follows, that there was a law which man, as a rational creature, was subjected to in his creation; and that this law was revealed to him. ... Now, God made man habitually righteous; man was to make himself actually righteous.”

<sup>98</sup> 알렉산더, 『에덴에서 새 예루살렘까지』, 179.

<sup>99</sup> Louth, ed., *Ancient Christian Commentary on Scripture, Old Testament I*, 94-95: Augustine, *Two Books on Genesis Against The Manichaeans* 2.20.30; Chrysostom, *Baptismal Instruction* 2.4-5; Tertullian, *On The Crown* 14.3.

<sup>100</sup> Ursinus, *Commentary on The Heidelberg Catechism*, 80-82.

적 속성'을 담아낸 상태에서 피조되었다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된 아담에게 비취지는 세 가지 직분은 본태성에 의한 직분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된 것으로, 하나님의 창조 목적과 창조 질서를 위해 주어진 직분이었다. 특히 아담의 세 가지 직분은 하나님의 공유적 속성을 담아내고 있는 '하나님 형상'과 관련된 직분으로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거룩하심'을 하나님의 '공의'에 입각하여 표현해내는 직분이었다.<sup>102</sup>

아담에게 주어진 '왕'과 '선지자', 그리고 '제사장'의 세 직분은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아름답게 가꾸어가기 위한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이루기 위한 직분이었으며, 창조 질서의 원리를 바르게 세워나가기 위해 주어진 직분이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 세계는 모든 것이 '선'을 이루게 되며,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아담은 자신에게 주어진 세 가지 직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하신 피조 세계를 아름답게 가꾸어가는 피조의 원리를 지켜나가야만 했다.<sup>103</sup> 따라서 아담의 세 가지 직분은 어떤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관점이라는 창조의 원리를 벗어나서는 안 되는 직분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이 생명이었다. 아담에게 주어진 직분은 아담 자신의 권위와 권세를 돌아보는 것이 우선이 되는 직분이 아니라 자신은 하나님께서 피조하신 모든 피조물들을 하나님의 공의에 입각하여 다스려야 하는 종과 같은 위치에 놓여진 자라는 것을 돌아보게 하는 직분이었다.

하나님께서 에덴동산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고, 아담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라는 창세기 2장 17절의 말씀을 주신 것은 아담에게 주어진 세 가지 직분은 기계적으로 작동되는 직분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수행되는 직분이라는 것을 말하며, 분별력과 판단력에 의해 수행되는 직분이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 이때 아담에게 주어진 '자유 의지'가 세 직분의 직무 수행과 함께 하게 된다. 그리고 아담에게 주어진 세 가지 직분이 창조론과 관계가 있다는 것은 아담의 세 가지 직분이 가지고 있는 기능을 통해서도 발견된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세 가지 직분을

101 Bavinck, *Reformed Dogmatics* Vol. 2, 407-08.

102 Berkhof, *Systematic Theology*, 91.

103 칼빈, 『칼빈주석: 로마서』, 248; Luther, *Lectures on Romans*, 239.

주실 때, 세 직분은 하나님의 창조의 본질을 이루고 있는 '선함'이 피조 세계의 중심을 이루어가도록 충성된 청지기로서 역할을 감당하게 된다.<sup>104</sup>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거룩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거룩을 지켜내는 역할을 감당해야만 했다. 아담에게 주어진 세 가지 직분이 가지는 나침판으로서 역학적 구조는 여기에 대해서 길이 되고, 방향을 제시하게 된다.

하나님의 창조 원리와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는 아담의 세 가지 직분은 각각의 역할을 가지고 있는 직분임에도 불구하고 세 가지 직분은 개별적인 직무 형식을 취하기보다 마치 삼위일체가 연합을 이루어 사역을 펼쳐나갔던 것처럼 일체를 이루어 인격적으로 모든 사역을 함께 감당하며, 하나님의 '선하심'과 '거룩하심'을 지켜가게 된다. 그러나 아담의 세 직분은 이런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적인 원리를 벗어나는 죄를 범한다. 뱀의 유혹 앞에 자신에게 주어진 직분의 직무를 통해 '공의'를 앞세우지 못한 아담의 세 직분은 자신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선하심'과 '거룩하심'을 손상시키게 된다.<sup>105</sup> 결국, 직분의 직무 유기에 따른 아담의 불순종은 타락을 불러일으켰으며, 그로 인하여 피조 세계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아니라 '가시와 엉겅퀴'를 만들어내는 결론에 이른다.

타락이 불러일으킨 죄, 여기에는 반드시 그 값이 있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지식과 능력을 주었기에 여기에 대한 죄책은 반드시 그 값이 뒤따를 수밖에 없었다.<sup>106</sup> 따라서 아담의 '창조 회복'을 말하는 둘째 아담의 대속에는 첫째 아담의 세 가지 직분에 대한 불신과 불순종에 따른 그 값의 회복을 함께 묻고 있었다. 그러므로 첫째 아담의 완전한 대속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리스도가 첫째 아담의 직분에 대한 완전한 회복을 일으켜야만 했다. 여기에는 둘째 아담인 그리스도가 첫째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해 상실당한 세

104 Calvin, *Inst* II.1.1-3: 사람을 창조 하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속에 선에 대한 열의와 영생에 대한 명상을 넣어주셨다. 그리하여 아담으로 하여금 본래의 고귀성을 잊지 않도록 하셨다; cf) II.1.4, 244-45: "Unfaithfulness, then, was the root of the Fall. But thereafter ambition and pride, together with ungratefulness, arose, because Adam by seeking more than was granted him shamefully spurned God's great bounty, which had been lavished upon him."

105 Hans Burger, *Being in Christ* (Eugene, OR: Wipf and Stock Publishers, 2009), 94.

106 Bavinck, *Reformed Dogmatics* Vol. 3, 33.

가지 직분을 공생애를 통해 회복시켜야 할 이유를 담고 있었다.

**[참고문헌]**

- Augustine. "The Perfection of the Image in the Contemplation of God".  
 ed. John Burnaby. *Augustine-Later Works*. London: Westminster  
 John Knox Press, 2006.
- \_\_\_\_\_. "On Free Will". ed. J. H. S. Burleigh. *Augustine Earlier Writings*.  
 Louisville, KY: Westminster John Knox Press, 2006.
- \_\_\_\_\_. "Man-Sin-Grace", ed. Henry Bettenson. *The Later Christian  
 Fathers*. Great Britain: The Guernsey Press co. Ltd, 1984.
- \_\_\_\_\_. *The City of God* Vol. I: I-XIII, XII.21, ed. Marcus Dods. Edinburgh:  
 T.&T. Clark, 1891.
- Bavinck, Herman. *Reformed Dogmatics* Vol. 1. Grand Rapids: Baker  
 Academic, 2003.
- \_\_\_\_\_. *Reformed Dogmatics* Vol. 2. Grand Rapids: Baker Academic, 2003.
- \_\_\_\_\_. *Reformed Dogmatics* Vol. 3. Grand Rapids: Baker Academic, 2004.
- Berkhof, Louis. *Systematic Theology*. Carlisle, PA: Banner of Truth, 1949.
- Boston, Thomas. *Human Nature in its Fourfold State*. Carlisle, PA: The  
 Banner of Truth Trust, 2015.
- Burger, Hans. *Being in Christ*. Eugene, OR: Wipf and Stock Publishers,  
 2009.
- Calvin, John.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 I*. ed. John McNeill.  
 Philadelphia: Westminster Press, 1960.
- \_\_\_\_\_. *Catechism of the church of Geneva*. ed. William S. Johnson.  
 Sheldon: Goodwin Printer, 1815.
- Charnock, Stephen. *Existence and Attribute of God* Vol. II. New York:  
 Robert Carter & Brothers, 1865.
- Hodge, A. A. *Commentary on The Confession of Faith*. Philadelphia:  
 Presbyterian Board of Publication, 1869.
- Hoekema, Anthony. A. *Created in God's Image*. Grand Rapids: Eerdmans,  
 1994.

- Schaff, Philip. ed. "The Belgic Confession", *The Creeds of Christendom* Vol. III. Grand Rapids: Baker Book House Company, 1996.
- \_\_\_\_\_. *History of The Christian Church* Vol. III. New York: Charles Scribner's Sons, 1922.
- Louth, Andrew. ed. *Ancient Christian Commentary on Scripture, Old Testament I*, ed. Thomas C. Oden. Illinois: IVP, 2001.
- Selderhuis, Herman. J. ed. *The Calvin Handbook*. Grand Rapids: Eerdmans, 2009.
- Turretin, Francis. *Institutes of Elenctic Theology Vol. 1: First through Tenth Topic*. trans. James T. Dennison, Jr. Phillipsburg, New Jersey: Presbyterian and Reformed Publishing Company, 1992.
- Ursinus, Zacharias. *Commentary on The Heidelberg Catechism*. ed. G.W. Williard. Columbus, Ohio: Olive Tree Communications, 2004.
- Van, Bruggen. J. *Annotation to The Heidelberg Catechism*. Winnipeg: Inheritance Publications, 1991.
- Wenham, Gordon. J. *World Biblical Commentary : Genesis 1-15*. Colombia: Word, Incorporated, 1987.
- 게메렌, 윌렘 반. 『구원계시의 발전사』. 권대영 역. 서울: 도서출판 솔로몬, 2017.
- 리브스, 마이클. 『선하신 하나님』. 장호준 역. 서울: 도서출판 복 있는 사람, 2016.
- 로스, 앨런. 『창조와 축복』. 김창동 역. 서울: 도서출판 디모데, 2007.
- 루이스, 고든 · 데머리스트, 브루스. 『통합신학』. 김귀탁 역. 서울: 부흥과개혁사, 2010.
- 미들턴, J. 리처드. 『해방의 형상』. 성기문 역. 서울: SFC 출판부, 2010.
- 바빙크, 헤르만. 『하나님의 큰 일』. 김영규 역.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1999.
- 바우만, 클라렌스. 『벨직 신앙고백서 해설』. 손정원 역. 서울: 도서출판 솔로몬, 2016.
- 아우구스티누스. 『신국론』. 성염 역. 왜관: 분도출판사, 2009.
- \_\_\_\_\_. 『삼위일체론』. 성염 역. 왜관: 분도출판사, 2015.
- \_\_\_\_\_. 『요한 서간 강해』. 최익철 역. 왜관: 분도출판사, 2011.
- \_\_\_\_\_. 『참된 종교』. 성염 역. 왜관: 분도출판사, 2011.



- 아퀴나스, 토마스. 『신학요강』 I. 박승찬 역. 고양: 나남, 2008.
- 알더스, G. Ch. 『화란주석 창세기 I』. 기독지혜사 편집부 역. 서울: 기독지혜사, 1986.
- 알렉산더, 데스몬드. 『에덴에서 새 예루살렘까지』. 배용덕 역. 서울: 부흥과개혁사, 2014.
- 오리게네스. 『원리론』. 이성효 외 3인 역. 서울: 아카넷, 2014.
- 윌리엄슨, G. I.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 강해』. 문성출 역. 대구: 양문출판사, 1988.
- 윌튼, 존 H. 『NIV 적용주석, 창세기』. 김일우 · 전광규 역. 서울: 한국성서유니온선교회, 2007.
- 젠티리, 피터 J · 웰럼, 스티븐 J. 『언약과 하나님 나라』. 김귀탁 역. 서울: 새물결플러스, 2017.
- 질송, 에티엔느. 『아우구스티누스 사상의 이해』. 김태규 역. 서울: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2011.
- 칼빈, 존. 『칼빈성경주석 1: 창세기 I』. 존 칼빈 성경주석 출판위원회 역. 서울: 성서연구원, 2012.
- \_\_\_\_\_. 『칼빈주석: 로마서』. 박문재 역. 고양: 크리스찬다이제스트, 2013.
- 갈혼, 데이비드. 『갈방을 읽다』. 홍병룡 역. 서울: 조이선교회, 2108.
- 포시디우스. 『아우구스티누스의 생애』. 이연학 · 최원오 역. 왜관: 분도출판사, 2009.
- 플라누스, 아만두스. 『하나님의 영원한 예정』. 김지훈 역. 용인: 킹덤박스, 2016.
- 페스코, 존. 『태초의 첫째 아담에서 종말의 둘째 아담 그리스도까지』. 김희정 역. 서울: 부흥과개혁사, 2012.
- 헨리, 매튜. 『창세기』. 원광연 역. 고양: 크리스찬다이제스트, 2008.
- 해밀턴, 빅터. 『NICOT 창세기 I』. 임요한 역. 서울: 부흥과개혁사, 2016.
- 이상규(편). 『칼빈과 종교개혁가들』. 부산: 고신대학교 개혁주의학술원, 2012.

[Abstract]

## The relationship between Adam's Threefold Office and Creationism

Youn Ho Jo

(Grisim Church, Systematic Theology)

This article is a study of how Adam's Threefold Office have a relationship with Creationism. Therefore, Adam's creation and his analysis of Threefold Office present important evidence here. God created Adam "in the image and likeness of God." Adam's creation as "the image of God" means that Adam was created with The Communicable attribute of God. And God establishes Adam as a officer who will cultivate the good world created by his 'goodness' in good shape. At this time, Adam was given Threefold Office: 'King', 'Prophet' and 'Priest'. These Threefold Office are related to the 'image of God' and were related to the 'Free Will' given to Adam. The 'image of God' can be said to be a creationism in a narrow sense. because, in the image of God is the attribute of God and the joy of God's creation engraved on it.

God creates Man on the sixth day, and finishes all creation. And he looks back at all the creation world he has created. "God saw all that he had made, and it was very good." Two important duties are given to Adam, who was the officer who cultivates and protects the created world of God. It was to keep God's 'Goodness' and 'Holiness' in the created world. If Adam was the crystallization of God's creation, the Threefold Office he gave him were the crystallization of the work of cultivating God's creation world beautifully.

**Key Words:** Creation, Adam, the image of God, Threefold Office, Free Will, Goodness